

광주 주말 이틀간 14명 확진...꼬리문 N차감염 '비상'

광주에서 주말 이틀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추가됐다.

광주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N차 감염으로 확산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방역수칙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10일 9명, 11일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총 누적확진자는 161명으로 늘었다.

이 중 10명은 완치돼 격리해제됐다.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16일간 확진자는 128명이다. 지역감염은 125명, 해외입국 3명 등이다.

감염경로별로는 광주사랑교회 38명, 금양오피스텔 관련 32명, 일곡중앙교회 24명, 광주고시학원 13명, 광복사 8명, 배드민턴 동호회 7명, 해외유입 3명, 조사중 1명 등이 다.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가 64명으로 128명의 절반에 달한다. 60대가 35명으로 가장 많고 50

배드민턴 동호회 새 감염원...체육시설 집합금지 이용섭 "적극적 동참·골든타임 확보 협조 부탁"

대 29명, 40대와 70대 각 17명, 30대 8명, 80대 7명, 20대 5명, 90대 4명, 10대와 10대 미만 각 3명이다.

◇금양에서 배드민턴 동호회까지...N차 감염 확산세 지속

최근 광주는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양오피스텔에서 사찰, 교회, 광주고시학원, 사우나, 요양원, 배드민턴 동호회까지 확산하고 있다.

배드민턴 동호회는 금양오피스텔 관련 확진자인 76명이 지난달 30일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 경기에 참석하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에 참석한 선수와 가족 등 7명이 확진됐다.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진자와 이동경로,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으나 조사 기간 중에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 중 감염경로를 숨기거나, 제대로 밝히지 않아 N차 감염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확진자들은 역학조사 진술에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해 추가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고위험 체육시설 집합금지

최근 배드민턴 동호회가 새로운

감염원으로 떠오르면서 광주시는 25일까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고위험 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행정조치에 따라 17개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과 공공·민간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친선 경기, 리그 경기 등 집단 체육활동과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도 전면 금지한다.

◇코로나19 대응비 65억원 긴급 지원

광주시는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대응비로 방역현장에 예비비 16억원과 재난기금 46억원 등 65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 검사시기와 물품지원에 12억5000만원, 사회복지시설 방역 물품에 10억원, 소방분야 감염예방 등 방역물품에 6억9400만원, 시내 버스 등 대중교통 방역물품에 6억



광주지역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 한 배드민턴장에서 시민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배드민턴 동호회 관련 확진자는 총 8명이라고 밝혔다.

2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시는 앞서 시교육청에 2억원을 지원해 지역 학원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을 구입토록 하고 자치구에도 선별진료소 운영과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3억원을 지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확진자 발

최이슬 기자

광주 교회들 방역수칙 잘 지켰다...1492개소 점검

"위반시 일벌백계 원칙으로 고발 조치"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들의 발열상태 확인.

광주시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휴일 교회 예배상황을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교회에 대해 이날 시와 자치구, 경찰 등 73명이 동원돼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지역내 1492개소에 대해 이뤄졌고 이 가운데 924개소에서 집합 예배가 진행됐다. 566개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거나 취소했다.

점검에는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시는 점검 결과 집합 예배

가 진행된 모든 곳에서 방역수칙을 지켜줬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5일에는 학원과 종교시설, 밀집도가 높은 지하 다중시설 등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타 시설 방문과 외부인 접촉금지가 내려졌고, 9일에는 지하에 있는 고위험시설 중 밀폐나 밀집, 밀집 등 '3밀' 공간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집합금지 등 조치도 내려졌다.

여기에 정부는 10일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정규예배를 제외한 일체의 대면모임과 행사 금지, 음식 섭취 행위 금지,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간격 유지, 전자 출입명부 의무 설치 등이다.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현장을 점검하고, 위반이 발견된 경우 일벌백계하겠다는 원칙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광주 배드민턴 클럽→방문판매 재분류

기존 집단감염 연관성 확인...방판 누적 135명

광주 지역의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떠올랐던 배드민턴 클럽 관련 확진자들이 기존 집단감염인 광주 방문판매 관련 확산과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광주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는 이날 기준으로 총 135명으로 늘어났다.

1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 12시부터

이날 낮 12시 사이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국내 집단감염 사례는 △광주 방문판매 모임 △경기 의정부 집단발병(이전 의정부 아파트 관련) 등이다.

광주 방문판매 모임 관련해서는 기존 광주 배드민턴 클럽 관련 확진자들이 광주 방문판매 모임으로 재분류됐다.

전날 12시 이후 금양빌딩 관련 1

명, 배드민턴 클럽 관련 3명 등 4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광주 방문판매 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는 135명으로 증가했다.

광주 방문판매 모임에서 전파된 하위 감염집단별 누적 확진자는 △광복사 14명 △금양빌딩 26명 △여행모임 5명 △광주사랑교회 17명 △CCC아가페실버센터 7명 △한울요양원 11명 △광주일곡중앙교회 20명 △SM사우나 7명 △T월드 휴대폰 매장 4명 △광주고시학원 16명 △해피뷰병원 1명 △배드민턴 클럽 7명 등이다.

정승호 기자

광주시, 고위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조치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금지

생활체육 동호회와 관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광주시가 오는 25일까지 실내 집단운동을 전면 금지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광주시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금양오피스텔 관련 76번 확진자가 지난달 30일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배드민턴 동호회 경기에 참석했다"며 "당일 참석 선수 및 가

족들 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17개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공공·민간 모두 포함)의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 "탁구와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친선경기, 리그경기 등 집단 체육활동과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등 신체 접촉이 많은 실내 집단 운동도 25일까지 전면 금지한

다"고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배드민턴 동호회와 관련해 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 76번 확진자(50대 남성·북구 중흥동)는 지난달 30일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북구 A클럽과 B클럽 간 배드민턴 정기클럽전에 참가했다.

이후 137번(50대 남성·북구 운암동)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두 확진 환자는 한 공간에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정 기자

ND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